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일본) 일본의 지방창생(創生) 전개와 분산형 국가 만들기
- (독일) 독일의 복수주소 체계 및 시사점

일본의 지방창생(創生) 전개와 분산형 국가 만들기

개요

-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9일 향후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原案)을 발표하였음
- 이 기본방침 2021(이하 ‘기본방침’으로 표기)에 나타난 ‘새로운 지방창생(創生)의 전개와 분산형 국가 만들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기본방침의 구성과 지방창생의 자리매김

-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의 비전
 - 제2장 다음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성장 원천 - 네 가지 원동력과 기반 마련 -
 - 제3장 감염증으로 표면화된 과제 극복을 위한 경제·재정 일체개혁
 - 제4장 당면한 경제재정 운영과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
- 이 중 ‘새로운 지방창생(創生)의 전개와 분산형 국가 만들기’에 관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일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에 포함되어 있음
- 기본방침에서는 향후 성장을 가져올 네 가지 원동력으로, 2050년 탄소 중립(neutral: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가 같은 양이 되는) 사회 달성, 디지털청 창설, 저출산 대책 및 육아 지원, 지방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가를 들고 있음

‘새로운 지방창생의 전개와 분산형 국가 만들기’ 주요 내용

- 그 주요 내용으로 다음의 여덟 가지를 담고 있음
 - (1)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유입 촉진
 - (2) 활력 있는 중견기업·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창출
 - (3)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 전반 끌어올리기
 - (4) 관광·인바운드의 재생
 - (5) 농림수산업의 수출 증진 및 성장 산업화

(6) 스포츠·문화예술 진흥

(7) 스마트 시티를 축으로 한 다핵연계(多核連携)의 가속

(8) 분산형 국가 조성과 개성을 살린 지역 조성

- 이 중 (3)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 전반 끌어올리기 및 (5) 농림수산업의 수출 증진 및 성장 산업화를 제외한 나머지를 살펴보기로 함
-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 전반 끌어올리기’는 민간수요 주도로 경제회복을 가져오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 강화하고 고용 증가나 임금인상을 촉진하는 세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농림수산업의 수출 증진 및 성장 산업화’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내시장 축소, 농림어업자의 감소,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을 성장산업으로 개혁 추진하여 수출 증진 및 소득 향상, 활력 있는 농산어촌 실현, 식료안전보장을 확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유입 촉진

- 지방 중소기업에의 취업, 취농, 사업승계, 창업 등을 계기로 하여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 인재의 이주·정착을 도모함
-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인재 리스트를 1만 명 규모로 조기에 확충하면서, 지방은행의 인재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 창업인(人) 제도 및 ‘지역부흥 협력반’을 추진하여 지방으로의 이주지원체제를 강화함
- 지방에서 원격 재택근무하는 ‘전직(転職) 없는 이주’를 실현하기 위해 ‘근무형 원격 사무실(satellite office)’을 정비하여 이주 입지에 도움이 되도록 함
- 고향납세 기부 제도를 활용한 ‘고향 주민증’, 고향 주민등록 제도, 삼림·전답 오너 제도 등으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이 확대되도록 지원함
- 두 지역 거주 또는 다거점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교육에 필요한 주민표·거주지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용 지침(guideline)을 책정하는 동시에 빈집·공터 बैं크의 확대·활용을 추진함

활력 있는 중견기업·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창출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원책 신청 절차의 전자화, 지원 기관이나 전문가의 가시화, 민간 지원 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경영지원 체제를 정비함

- 디지털 분야 투자, 전자상거래(EC) 활용이나 신용공여를 이용한 해외수출 촉진, 인재 확보·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활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창출을 촉진함
- 지역의 여성 기업가, 사회기업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승계·재생 원활화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여 지역 공동체(community)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
- 하청 중소기업 노무비 상상을 거래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전개하고, 특정 기간 하청거래 특별 조사로 하청거래 가격교섭력을 높임

관광·인바운드의 재생

-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 것이므로 관광업이나 관광지 재생을 위해 숙박 시설, 음식·선물 가게 시설 개수, 폐옥 철거, 민간 활력을 통한 경영력 향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달성하는 DX(digital transformation) 사업 추진으로 수익성·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 지역 내 종적 관계를 넘어 관광업과 타업종 간의 제휴에 따른 콘텐츠 조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 자원의 세련화, 겨울철 관광지 정비, 국립공원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역사적 가치로서의 고민가(古民家) 활용, 문화관광 거점 정비, 국가문화재(예, 황거(皇居) 내에 있는 박물관 시설 산노마루쇼조칸(三の丸尚蔵館)의 미술품)의 지방 전시 등을 추진함
- 일본주, 전통 소주(예, 아와모리(泡盛))의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함
- 관광객을 위한 다중 언어 표기, 장애인 불편 해소, 무역·출입국절차(CIQ) 환경 정비, 관광지 교통 충실, 분산형 패키지 투어 시행, 종합형 리조트(IR: 카지노, 호텔, 국제회의장, 전시장, 쇼핑센터 등의 집합시설) 정비를 진행함

스포츠·문화예술의 진흥

- 2021년 7월과 8월에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통해 다양한 유산(legacy)을 창출함
- 첨단기술 이용, 기부 확대, 학교·스포츠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자금 활용(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스포츠 진흥 복권·상품 매출 확대를 통해 지도자나 활동 단체를 육성하고 지역 스포츠를 보급·발전시킴
- 현행 스포츠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시행함
- 스포츠·건강 도시 조성 추진, 문화재 장인(匠人) 프로젝트 실시, 어린이 체험 활동의 충실, 예술품 시장의 활성화, 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의 충실을 기함

스마트 시티를 축으로 한 다핵연계(多核連携)의 가속화

- 다핵연계라 함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집적 핵심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것을 말함
- 내각부 정부령 지정 도시 및 중핵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100개 지역의 스마트 시티를 2025년까지 구축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탈(脫)탄소·친환경(Green) 사회를 이루어 감
- 스마트 시티의 중점정비 지역(슈퍼 시티)을 선정하고, 도시간·분야간 연계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를 조기에 정비하여 다핵연계를 실현해 감
- ‘이동’에 사용되는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해 예약, 결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aaS (Mobility as a Service : 서비스로서의 이동성) 구현으로 서비스의 수평적 전개를 가속화함 (스마트폰 하나로 카셰어링(car sharing), 철도, 택시, 자전거, 전동 스쿠터, 주차장, 렌터카, 그리고 숙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 MaaS의 일례라 할 수 있음)
- 스마트 시티 형성에 기여하는 평가 지표의 정밀 조사, 인재 육성, 운영 자금 회수 모델을 확립함

분산형 국가 조성과 개성을 살린 지역 조성

- 지역 개성을 살린 고부가가치의 고용 창출,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inbound), 중소기업이나 농업의 수출 촉진, 헬스 케어 및 친환경(green) 분야의 산업화, 공급망(supply chain) 정비를 추진함
- 지방도로, 신칸센, 최신 리니어 신칸센, 항만, 항공, 대중교통 정비 및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
- 공원, 민간 시설 활용으로 여유롭고 아늑하며 걷고 싶어지는 마을을 조성하고 농산어촌 체험 장려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책정, STEAM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교양(Arts, 리버럴 아트), 수학(Mathematics))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재 육성, 연구 개발 확충을 통해 지방 산업을 창출함
-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향납세 활용, 기업 본사 기능의 지방 이전을 위한 거점 강화 세제 활용,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밀착형 창업 촉진,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기반 강화를 추진함

평가

-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방에 대한 관심 고조, 온라인을 이용한 재택근무 확대,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 창출 및 새로운 지방창생을 전개하여 수도권 집중(일본에서는 ‘도쿄 일극집중’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시정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의 큰 틀이라 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행정 서비스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 간의 광역 연계나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시정촌 지원 및 전문 인재 육성·활용으로 소규모 시정촌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
- 역사적으로 지방화가 많이 진전된 일본에서는 지역 문화, 음식, 자연환경, 기후 등의 매력을 살린 관광 및 그 관련 산업이 지방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여 왔음
- 코로나19의 만연으로 지방 관광 산업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Go To 트래블’ 사업으로 지역 관광 사업을 지원하기에 이르렀으나 감염자가 수그러들지 않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시사점

- 일본보다 한국은 디지털화의 진전이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전통 산업이나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자원 확보가 덜 되어 있고 전통 문화자원이 일본보다 경시되는 경향을 띠고 있음
- 일본은 디지털화 진전이 한국에 비해 더딘 상황이나 전통술이나 공예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아날로그적 산업이 중시되어 왔고 전통 술공예나 아날로그 산업을 관광 자원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음
- 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간판 정책의 하나가 디지털청 창설이며, 이번 기본방침에서도 지방창생에 있어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정책 이슈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한일 간 전략적 연계로 일본의 지방창생 전개 및 분산형 국가 만들기에 한국의 디지털 강점을 접목하는 방법 모색이 우리나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국중호 통신원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kook@yokohama-cu.ac.jp